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k.net

**주일오전설교**

**이삭의 두 아들**

[창세기 25:1-4]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욱산과 므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이를 낳았고 욱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잇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벳과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다라.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고 이마 이삭이 결혼한 후 그두라라는 이름의 후처를 취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기력을 주셨고 그의 아내 그두라는 아브라함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다. 그의 자손들 중에는 스바, 드단, 잇수르 등 성경에 나오는 지역 혹은 종족의 이름들이 있다. 그러나 성경에는 같은 이름의 사람들이나 종족들이 있으므로(창 10:7, 22, 28)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5-6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첩들의 아들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다라.

아브라함은, 그의 사랑하던 아내 사라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이삭은 그의 주상속자이었다. 또 아브라함은 자기의 다른 아들들, 즉 여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그두라의 여섯 아들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이삭을 떠나 동쪽 땅, 즉 오늘날 아라비아 반도로 가게 하였다.

[7-8절] 아브라함의 행년이 175세라. 그가 수(壽)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진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은 175세에 별세하였다. 그는 주전 2166년경에 출생하여 주전 1991년경에 사망하였다.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대의 인물이었다고, 우리나라의 고조선 시대이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고 기운이 다하여 숨이 끊어졌다. 본문은 그의 죽음을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표현한다. 그것은 창세기 15:15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대로 된 것이다. 이 표현은 사람이 죽음으로 그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육체

를 떠나 어떤 곳에 모이는 것을 보인다.

[9-11절]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헛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헛 족속에게서 산 밭이다.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 라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다라.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를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복의 계대(繼代)이다. 이삭은 아브라함을 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가 될 것이다.

[12-18절]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뫼이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앓브엘과 밍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맛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방백이었다라. 이스마엘은 행년이 137세에 기운이 진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월라에서부터 잇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다라.

모세는 이스마엘의 후예에 대해 먼저 기록한 후 이삭에 대해 기록한다. ‘후예’라는 원어는 창세기에 11번이나 나오는 단어인데, 창세기가 한 사람의 저자 모세에 의해 쓰여진 책임을 잘 나타낸다. 그것은 ‘대략, 계보, 사적, 후예, 약진’ 등 여러 말로 번역되었다(24: 51; 6:9; 10:1; 11:10, 27; 25:12, 19; 36:1, 9; 37:1).

이스마엘은 12명의 아들들을 낳았고 그들은 다 열두 부족의 방백들이 되었다. 이스마엘은 137세까지 살았고, 180세까지 산(창 35:28) 이삭보다 일찍 별세했다. 그의 자손들은 아라비아 반도와 홍해 서남쪽에 흩어져 살았다. 하월라는 홍해 서쪽 최남단, 구스 남쪽이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수적으로 번창하였다. 두 번째 아내 그두라를 통해 여섯 아들이 출산되었고, 첩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 열두 명의 아들이 출산되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시고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쫓아 나리라”(창 17:5-6)고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19-21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리반의 누이였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이삭은 40세에 결혼하였으나 60세가 되기까지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다. 그는 자녀를 가지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의 기도는 아마 거의 20년 가까이 올린 기도이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아내 리브가는 임신하였다.

이삭이 자녀를 위해 기도한 긴 기간은 하나님께서 언약 사촌 이삭을 훈련시키신 기간이었다. 그의 조상 노아는 500세에 자녀를 가졌었다(창 5:32). 그의 부친 아브라함도 75세 이전에 결혼했으나 100세가 되기까지 자녀가 없었다. 이삭은 하나님께 자녀를 주시기를 구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성숙되었을 것이다. 그는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며 그의 응답을 체험하였고 그것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을 것이다.

[22-26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그 여자게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 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족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全身) [온 몸이 갖듯 가죽 털은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이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잉태케 하셨었고 또 그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특별한 말씀을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작정을 보인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27-28절]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조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 쌍둥이 아이들은 잘 자랐다. 에서는 장성하여 익숙한 사냥꾼인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조용한 사람이 되었다. ‘조용한’이라고 번역된 말(탈 27)은 영어성경들에서 ‘plain’(솔직한, 순전한)

(KJV), ‘peaceful’(온화한, 조용한)(NASB), ‘quiet’(온화한)(NIV) 등으로 번역되었지만, 성경에 사용된 예들(13번)은 주로 ‘순전한, 순진한’이라는 뜻이다(BDB). 고대 헬리어 70인역도 본문을 ‘순전한, 순진한’이라는 말(아플라스토스 ἀπλαστος)로 번역하였다.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의 인물로 생각되는 욥에 대해 증거하는 욥기에는 이 말이 7번 나오며, ‘순전한, 온전한’이라는 뜻으로 쓰였다(1:1, 8; 2:3; 8:20; 9:20, 21, 22). 야곱은 순전한, 순진한, 온화한 사람이었다고 보인다.

[29-34절] 야곱이 죽을 썬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팔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다.

‘에돔’은 ‘붉다’는 말에서 나왔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평소에 장자의 명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고 팔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 ‘팔죽’이라는 말에서 ‘팔’이라는 원어는 ‘렌즈콩’(편두 혹은 불콩)이라는 뜻이다. 본문에 팔죽은 일종의 붉은 색의 콩죽이다.

이삭 가정의 장자 명분은 단순히 땅 위에서 부모의 유산을 배급절 받는 것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다. 물론 장자가 부모의 유산을 배급절 받는 것(신 21:17)은 아마 옛날부터의 관습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삭 가정의 장자 명분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계대(繼代)될 하나님의 언약의 복과 관계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창 22:18). 이 언약의 계승자, 이 언약의 복을 누릴 장자가 누구인가?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중시하고 사모하였다고 보인다. 그것은 그의 경건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에서는 달랐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겼다.

창세기 25장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기도 응답을 체험하자. 이삭은 결혼한 지 20년이 되도록 자녀가 없었다. 그것은 확실히 그의 신앙 훈련의 과정이었다. 이삭은 자녀가 없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하심을 사모하였고 마침내 응답을 얻었다. 그것은 낙망치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한 긴 세

월 후이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 인격의 훈련을 받는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며 성도의 특권이다(시 50:15; 마 7:7-8). 기도 응답의 체험은 곧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한층 더 성숙시킨다. 고난은 성도에게 걱정거리가 아니고 기도거리일 뿐이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체험할 때까지 낙심치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자.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복의 계대를 사모하자.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였다. 그는 단순히 장자의 복뿐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였다고 보인다.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이삭에게 전해졌고 이삭에게 주신 복은 아마 장자에게 주어질 것이다.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 곧 장자권을 가법게 여겼다. 그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지 않았고 복의 계대를 사모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기에게 “큰 지는 어린 지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다. 리브기는 하나님의 복이 에서 대신 야곱을 통해 이어질 것을 아마 믿었을 것이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합법적으로 장자권을 샀다. 에서는 맹세하며 그것을 야곱에게 팔았다. 과연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복을 받을 것이다.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

하나님께서 신약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과 영생과 천국 기업을 이어받는 복을 주셨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얻은 복이다. 요한일서 5:13,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영생과 천국의 복을 가법게 여기지 말고 사모해야 한다. 우리는 이 귀한 복을 이 세상에 허무한 돈이나 육신의 쾌락이나 며예와 바꾸지 말아야 한다. 또 우리는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복이 계승되기를 위해 사모하며 기도하며 힘써야 한다.

**주일오후설교 원망과 징벌**

[민수기 14:1-5]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시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불신앙적인 열 정탐꾼의 나

쁜 보고를 받은 온 이스라엘 회중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애곡하였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신다고 말했고 한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하였다. 이 말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라고 본다.

**[6-10절]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논의 아들 . . . .**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바르게 말했다. (1)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며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2)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3)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와 함께하신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참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며 그를 경외하고 순종하였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치자고 말했고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는 비상한 때에 때때로 직접 개입하신다.

**[11-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않고 멸시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염병으로 쳐 멸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다. ‘멸하다’는 원어는 ‘소유권을 빼앗다’(BDB, KJV, NASB)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거두시겠다는 뜻이다.

**[13-19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 . . .**

모세는 이방 나라들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는 고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그의 영광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였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음을 따라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간구했다.

**[20-2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 지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으나, 그들이 그가 약속한 땅에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오직 하나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를 온전히 좇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다.

[26-35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제누세켄 מַגִּידֵי־רָעָה) 너희의 불신실함(NASB, NIV)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일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 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회중의 문제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한 것이었다. 또 그는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며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결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또 그는 그들이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그들의 유아들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 20세 미만의 자녀들은 그들의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 40년간 그 부모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거

역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시면서 그들이 이 광야에서 반드시 다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36-38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열두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열 명은 그 땅을 악평하며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하였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즉각적 징벌을 받은 것 같다.

[39-45절]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 . . .

모세가 이 말로 백성에게 알리자 백성은 크게 슬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때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내려와 이스라엘 자손을 쳤다.

민수기 14장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거역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시하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복된 가나안 땅을 악평했고 심지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충성된 정탐꾼들을 돌로 치자고 말하였다.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자.

둘째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다른 정탐꾼들과 달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를 경외하였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약속을 확신했고 그의 뜻에 순종하였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고 감사하며 오직 그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자.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엄위하신 공의와 진노를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불평하며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고 전염병으로 쳐서 죽이려 하셨다. 그러나 모세의 간구로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으나 20세 이상의 모든 백성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또 그들의 자녀들은 그들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땅을 악평했던 정탐꾼들은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책안내] ● 김효성, **누기복음 강해** 제2판 373쪽, 3,000원.  
● 김효성 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7판 108쪽, 1,200원.  
● 김효성, **레위기 강해** 제2판 164쪽, 2,000원.  
● 김효성, **역대기 강해** 제2판 256쪽, 2,500원.  
● 김효성,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강해** 129쪽, 1,500원.